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등 온라인 물은 물론 대형마트, 편의점까지 배송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고객들은 '묶음배송', '당일배송'을 통해 보다 저렴하고 빠른 배송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됐다. CJ오쇼핑은 국내 홈쇼핑업계 최초로 전국 당일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데렐라 배송서비스'를 시작했다. 사진제공 | CJ오쇼핑

## 묶음·당일배송... 불붙은 배달전쟁

### 유통업체, 배송 서비스의 진화

쿠팡, 1100여명 쿠팡맨 '로켓배송' 올인 CU, 배달업체와 손잡고 도시락 등 배달 CJ오쇼핑은 업계 최초 당일배송 서비스

국내 유통업체가 '배달 전쟁'을 벌이고 있다. 오픈마켓과 소셜커머스 등 온라인물부터 대형마트는 물론 편의점까지 다양한 형태의 유통기업들이 배송 서비스 강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사용자들은 '묶음배송'과 '당일배송' 등을 통해 보다 편리하게 구입한 물건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업계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배송서비스 경쟁도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 ●쿠팡, 농산물도 로켓배송으로

배송 서비스에 가장 공을 들이는 기업은 소셜커머스 쿠팡. 택배회사나 전문 배달업체를 이용하는 다른 기업과 달리 자체 관련인력(쿠팡맨)을 채용해 직접 상품을 배송하고 있다. 현재 1100명이 넘는 쿠팡맨들이 서울과 6대 광역시, 경기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유아동용품과 생필품, 뷰티, 식품, 가구 등 쿠팡이 사입한 제품에 한해 배송을 해준다. 택배업체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고 반발하면서 9800원 이상 제품만 로켓배송 해주는 것으로 서비스를 개편하는 등 논란을 낳았지만 쿠팡은 서비스를 더 공격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최근엔 농협중앙회와 업무



편의점 CU가 배달 전문업체 부탁해와 손잡고 배달 서비스를 시작했다. 사진제공 | CU

협약을 체결하고 각종 농산물로 로켓배송 판매 상품군을 확대한다고 밝혀 주목받았다. 6월 중 농협중앙회와 함께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농산물 및 신선식품의 수요가 많은 추석 전까지 준비를 마치고 판매를 시작하기로 했다.

#### ●편의점, CU도 도시락 등 배달

편의점도 올인체널 강화를 위해 배달 서비스에 나섰다. CU는 배달 전문업체 부탁해와 손잡고 배달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CU멤버스' (7월 오픈 예정)와 '부탁해' 애플리케이션 또는 웹사이트를 접속해 1만 원 이상 구매할 경우, 40분 이내에 원하는 곳에서 상품을 받을 수 있다. 배달 이용료는 1500~3000원으로 거리별 차등 부과된다. 위치 기반으로 주문자로부터 가장

가까운 매장이 자동으로 지정되며, 재고가 없을 경우 인근의 다른 매장을 연결해 준다. 주문 가능 상품은 도시락과 삼각김밥 등 간편 식품부터 직접 매장에서 조리한 피자과 치킨은 물론 소화제와 연고 등 의약품까지 100여 가지에 이른다. 오피스와 1~2인 가구가 밀집한 강남과 서초, 송파, 여의도 내 30개 매장을 대상으로 두달 동안 테스트 한 뒤, 희망하는 점포의 신청을 받아 연말까지 서울지역 16개 구내 1000여개 점포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 ●홈쇼핑도 당일 배송 서비스

CJ오쇼핑도 최근 홈쇼핑업계 최초로 전국 당일배송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서울과 경기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시행해온 당일 배송 서비스를 5대 광역시로 확대한 '신데렐라 배송서비스'를 시작한 것이다. 소비자들은 오전 9시30분 이전 방송 중 CJ오쇼핑 물류창고에서 출고되는 당일배송 대상 상품을 주문할 경우 전용 서클을 통해 당일 저녁 상품을 수령할 수 있다. CJ오쇼핑은 이를 위해 당일배송 전담 인력을 150명 수준으로 확대하고, 3월부터 한달간 지방 5대 광역시를 대상으로 테스트를 진행했다. 또 서비스 시행 초기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당일배송 대상 상품을 물류센터에 선입고시켜 배송시간을 최대한 단축할 계획이다. CJ오쇼핑은 6월 중 충북 천안과 전북 전주로 당일배송 권역을 확대하고, 7월 내 충북 청주시와 경남 창원 등에도 신데렐라 서비스를 적용할 계획이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 가뭄 상품은 웃고 장마 상품은 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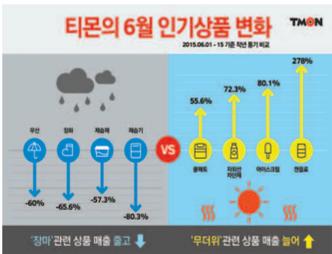
가습기·자외선 차단제 판매 급증  
제습기·우산 등은 수요 크게 줄어

무더위와 함께 가뭄이 이어지면서 관련 상품 수요가 크게 늘었다. 반면 장마와 관련한 제품 수요는 지난해에 비해 줄었다.

오픈마켓 G마켓은 최근 한달(5.19~6.18) 동안 관련 상품 판매량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가습기와 수분크림 등 일상용품은 물론 스프링클러와 호스 같은 농업용품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배 이상 증가했다. 대표적 상품군은 가습기로 최근 한 달 동안 판매가 107% 급증했다.

반면 장마가 늦어지면서 정차 많이 펼쳐야 할 제습기 등은 수요가 줄었다. 최근 한 달 동안 제습기 판매는 지난해와 비교해 27% 감소세를 보였고, 제습제 판매도 16% 감소했다. 레인코트와 레인부츠도 판매가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티켓몬스터도 6월1일부터 15일까지의 매출을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한 결과, 우산과 제습기 등 장마 관련 상품 매출이 많게는 80% 이상 줄어든 반면, 아이스크림과 자외선차단제 등 무더위



티켓몬스터의 6월 인기상품 변화에서는 콜매트, 아이스크림, 자외선 차단제의 매출이 상승한 데 비해 우산, 정차, 제습기 등은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사진제공 | 티켓몬스터

와 관련한 상품 매출은 30~80%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우산과 정차 매출은 각각 60%와 65.6% 줄었고, 최근 몇 년간 큰 인기를 끌었던 제습기 매출도 80.3%까지 감소했다. 제습제도 57.3% 줄었다.

반면 무더위 관련 상품 매출은 크게 늘었다. '스프라이트'와 '코카콜라' 등 캔음료 제품은 251% 증가했다. 그밖에 아이스크림 매출도 80.1%, 자외선차단제는 72.3%, 쿨토시는 284%, 콜매트는 55.6% 매출이 증가했다. 김명근 기자

## 김동호 문화융성위원회 몽블랑문화예술후원자상

몽블랑은 2015몽블랑 문화예술후원자상 한국수상자로 김동호(사진) 문화융성위원회 위원장을 선정했다.



김 위원장은 부산국제영화제(BIFF) 창설 및 15년간 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부산국제영화제가 아시아를 대표하는 권위 있는 영화의 장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몽블랑은 문화재단은 1992년부터 매년 한국을 비롯한 10여 개국에서 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하고 노력하는 문화예술 후원자에게 경의와 감사를 표하기 위해 몽블랑문화예술후원자를 선정, 시상하고 있다.

문화예술후원자상 수상자들에게는 몽블랑 인터내셔널 아트장 아틀리에에서 특별히 순금으로 제작한 한정 수량의 몽블랑문화예술후원자상 펜(Patron of Art Edition)을 비롯해 1만5000유로의 문화예술 후원금이 수여된다.

원성열 기자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

## 아디다스 '이지부스트 350' 전세계 동시 발매

혁신적 프라임니트 소재...착화감 최고

아디다스 오리지널스가 힙합 뮤지션 칸예 웨스트와 두 번째 콜라보레이션 '이지부스트(YEEZY BOOST) 350'을 27일 한국을 포함해 전세계 동시 발매한다.

아디다스와 첫 번째 콜라보레이션 '이지부스트 750'은 2월 출시되자마자 세계적으로 큰 화제를 불러일으키며 발매 즉시 완판된 바 있다. 당시 이 신발을 얻기 위해 발매 며칠 전부터 매장 앞에서 밤을 새는 등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다.

이번 이지부스트 350은 한 줄의 실로 정교하게 짜여진 니트 형식의 혁신적인 프라임니트(Primeknit) 소재를 사용해 또 하나의 퍼부처럼 발을 완벽하게 감싸는 뛰어난 착화감이 특징이다. 미드솔 전체에 들어간 아디다스 부스트 테크놀로지는 걸을 때마다 뛰어난 쿠셔닝과 에너지 리턴으로 최상의 편안함과 퍼포먼스를 제공한다. 또 현대적이면서도 자연스러움을 추구하는 칸예의 열정을 담아 아름



아디다스 오리지널스가 힙합 뮤지션 칸예 웨스트와 협업해 선보인 '이지부스트 350'. 사진제공 | 아디다스

다우면서도 심플한 소재에,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심미적이고 미래지향적 스타일로 탄생했다.

이지부스트 350은 아디다스 공식 온라인 스토어(Shop.adidas.co.kr)와 아디다스 오리지널스 서울 플래그십 스토어, 아디다스 오리지널스 명동, 아디다스 오리지널스 홍대, 아디다스 오리지널스 이태원, 아디다스 오리지널스 광주 충장로점 등에서 한정 판매될 예정이다.

최현길 기자 choing2@donga.com

## 11인가, 28일까지 '백화점·몰 얼리 섬머 세일'

현대백화점·CJ몰 등 대형 유통채널 참여

SK플래닛 11인가는 28일까지 '백화점&몰 얼리 섬머 세일'을 실시한다. 11인가에 입점한 갤러리백화점과 현대백화점, AK플라자, 아이파크백화점, 대구백화점 등 5개 백화점을 포함해 롯데닷컴과 CJ몰, 현대더몰, 홈플러스 등 대형 유통채널이 참여한다.

이번 기획전에선 백화점과 온라인 종합몰 등 제휴사별 인기상품 54종을 할인 판매한다. '엔폴름 맥시멈 다운제품'을 할인가 5만5800원에, '15년 신상 엘트 이너웨어 세트'를 23% 할인한 1만6900원, '락피쉬 쉘스 젤리샌들'은 20% 할인한 2만9900원에 판매한다. '지오다노' 슬림핏 면바지는 한정특가 1만4700원, '비온드클로젯 도그티'는 2만9750원에 마련했다. 각 제휴사 전용 20% 할인쿠폰(최대5000원)도 발급한다. 또 '아이파크백화점 핫 서머 페스티벌' 기획전을 통해 게스와 지오다노, 엔듀 등 인기 브랜드 제품을



SK플래닛 11인가가 28일까지 5개 백화점과 대형 유통채널들이 참여하는 '백화점&몰 얼리 섬머 세일'을 실시한다. 사진제공 | 11인가

최대 80% 할인한다. 현대백화점과 AK백화점, 롯데닷컴 등 제휴사별 데일리 특가 상품을 선보이는 '백화점 슈퍼 워크' 기획전도 진행한다. '블랙야크키즈 쿠스다운 점퍼 KB로그다운 재킷'을 19% 할인한 5만4900원, '브이텍 걸음바 학습기 한영버전'을 34% 할인한 5만7000원에 한정수량 판매한다. 김명근 기자

## KT&G-농협중앙회, 우리 농산물 소비촉진 MOU

KT&G와 농협중앙회가 22일 민영진 KT&G 대표이사, 이상욱 농협 농업경제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 농산물 소비촉진과 사회공헌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사는 향후 ▲우리 농산물을 매개로 한 사회공헌(CSR)활동 ▲우리 농산물을 원료로 한 농식품 소비촉진 캠페인 ▲인삼중자 불법유통 차단 및 우수 경작 기술 공동 개발 ▲농업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사업 발굴 등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KT&G는 복지재단을 통해 7월부터 530여개 지역아동센터에 우리 농산물로 구성된 '상상 과일바구니'를 매월 정기적으로 공급하여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방과 후 간식을 제공하는 사회공헌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민영진 KT&G 대표이사는 "이번 상생협약으로 수혜대상자와 농업인을 함께 돕는 새로



민영진 KT&G 대표이사(오른쪽)와 이상욱 농협 농업경제대표이사가 농산물 소비촉진과 사회공헌 확대 업무협약식에서 '상상 과일바구니'를 소개하고 있다. 사진제공 | KT&G

운 차원의 사회공헌활동을 펼칠 수 있게 되었다"며 "대표 토종기업으로서 우리 제품·농산물을 활용한 사회공헌 리딩기업의 역할을 더욱 확대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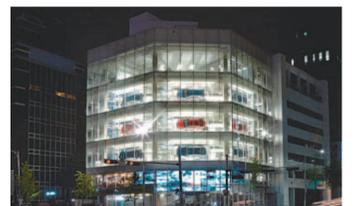
양형모 기자 ramb@donga.com

## 현대차 '휴먼 라이브러리' 토크쇼 명사 초청 고객들과 자동차·인생 이야기

현대자동차는 26일부터 매월 마지막 금요일 현대 모터스튜디오에 다양한 분야의 명사와 고객들을 초청해 인생과 자동차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토크쇼 이벤트 '휴먼 라이브러리(Human Library)'를 진행한다.

휴먼 라이브러리는 테마추출인 사회운동가 로니 에버겔(Ronni Abergel)이 창안한 것으로, 도서관에서 책을 읽듯이 사람들의 대화와 소통을 통해 지식과 경험, 가치관을 공유한다는 개념이다.

26일 열리는 첫 행사는 최근 요리 프로그램을 통해 인기를 누리고 있는 웹툰 작가이자 요리사인 김풍 작가를 초청해 '자동차 여행에서 즐길 수 있는 요리' 및 '이 시대가 원하는 일, 재미, 성공'이라는 두 가지 주제로 오후 7시30분부터 1시간가량 진행된다. 참가를 원하는 고객은 22일부터 24일까지 현대 모터스



현대자동차는 26일부터 매월 마지막 금요일, 현대 모터스튜디오에 다양한 분야의 명사와 고객들을 초청해 인생과 자동차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 토크쇼 이벤트 '휴먼 라이브러리'를 진행한다. 사진제공 | 현대자동차

튜디오 홈페이지(motorstudio.hyundai.com)를 확인 후 이메일 접수를 통해 응모할 수 있으며, 추첨을 통해 선정된 고객은 25일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연락 등을 통해 안내 받는다.

7월에 한국화가 김현정 화백, 8월에는 뮤지션 및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지누션'의 선을 초청하는 등 다양한 분야의 명사들과 고객들이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이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